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4. 3. 2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빈 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 2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 3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 4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4장 16~20절

다 같이

-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 나눔

보혜사 성령님

인도자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앞두신 주님께서는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 (παράκλητος,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는 '파라칼레오' (παρακαλεω)에서 유래된 말로서 '변호자', '탄원자', '증보자' 등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성령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많이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도와 함께 머물면서 진리의 영으로서 성도의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과 관련해 정작 알아야 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오셨는지에 관해 알아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겠으니 (αἰτέω, 에로타오)'는 누구에게 무엇을 '간청하다', '구걸하다', '중보적 입장에서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미처 그 필요성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요, 관심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기 전에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무한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본문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보지도' (δεωρεω, 데오레오)는 마음이나 영으로 '깨닫다', '인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성령을 아시리라 생각합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령에 관해 많은 말을 하니깐 그들도 어렴풋이나마 들어 알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처럼 체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깨닫거나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오직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도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주셨다는 증거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을 모시는 가정과 개인이 되어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본문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영원토록' (αἰών, 아이온)은 '항상' 이란 뜻의 '아에이'에서 유래한 말로 앞으로 올 끝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있게' (μένω, 메노)는 '영존하다', '그대로 남아 있다', '유하다'라는 뜻으로 기본 의미는 '머물다'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앞으로 올 끝없는 시간 동안에 우리와 늘 함께 유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언짢으면 떠나 버리는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기력하게 그대로 두지 마시고 늘 의지하고 그 뜻에 복종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눅

다 같 이

- 1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승리하였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 2 고난 주간 가운데 내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눠주세요.

중 보 기 도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다 같 이

- 1 큰빛은혜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도록
- 2 언제든 주의 전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속히 이루도록
-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 4 목회자와 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 5 큰빛은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복종하여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